



12면

고창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확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음 2월 18일) 제249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대구 경증 자가격리자 230여명 전북서 치료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210명 · 남원의료원 21명 전북도, 연락관 파견 등 생활치료센터 정비총력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인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에 속속 입소하는 가운데 전북에도 대구지역 경증 자가격리자 일부가 수용된다.

또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인 남원의료원 등에도 대구지역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전북도는 이들에 대한 치료, 지원과 함께 민간의 전북지역 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내 생활치료센터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금구면에 소재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210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 대구시, 북지부 등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별도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대구지역 경증 자가격리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다.

전북도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연락관을 파견하고, 긴급 응급환자발생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진료 조치 등 환자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지역인 김제 주민들은 지난 10일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 대구 지역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 운영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대본은 지난 1일 경증 환자는 의료지원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한 뒤 지난 10일 기준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18곳에 경증환자 2,448명을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이날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 21명도 감염병전담병원인 남원의료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는다.

당초 군산의료원에도 대구지역 환자 67명이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먼 이동 거리에 따른 환자 이송 문제 등이 제기돼 보류된 상태다.

또 오는 12일에는 남원의료원에 30명, 진안의료원에 10명이 추가 이송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함께 도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북도 생활치료센터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전북도는 도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북인재개발원을 비롯한 각 시군당 1곳씩 모두 15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수용인원이 적은 곳은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되는 등 코로나19 환자 대량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의 아픔을 함께 하고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철통 같은 방역과 민간의 상황에 대비한 도내 생활치료센터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1일 김제시 금구면에 소재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등 230여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는다. 사진은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입구 모습으로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주국제영화제, 5월 28일 개막

코로나19 우려 일정 연기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28일 열린다.

영화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영화제 개막일을 4월 30일에서 5월 28일

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제 게스트 및 관객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

점검해 영화제 진행에 있어 민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와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다.

2000년 처음으로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손꼽힌다. 기존 영화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지향, 저예산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한다.

/장은성 기자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기간 연장

전북도, 공감대 형성 결실...산업체질 고도화 안착 계기 마련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2년 4월 4일까지 2년 연장된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서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따른 조선·자동차 산업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는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도는 전북연구원, 산업연구원과 함께 군산시에 대한 경제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공문화했으며, 정부부처 방문, 국무총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간담회, 경제수석 수석차 기업간담회, 경제부총리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전북도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현장실사, 26일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지난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도는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 간

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의 어려움을 브리핑하고 지정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지정연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대체보안산업 육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체질 고도화 안착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정연장을 통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유지되고,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이 지속 지원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신천지 고위험직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진

도, 간병인 등 104명 특별관리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도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신천지 종사자 1백여 명에 대한 전수 검진에 돌입했다.

도는 신천지 신도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관리 방침에 따라 이번에 확보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104명에 대한 전수 검진을 10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추후 정부로부터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신천지 종사자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검진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보한 신천지 종사자는 시군별로 전주 49명, 군산 15명, 익산 12명, 정읍 13명, 남원 2명, 김제 2명, 완주 3명, 순창 1명, 고창 3명, 부안 4명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우선 검진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검진 완료 시까지 매일 전화연락 등 능동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진 전에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74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99.99%인 1만3,261명이 조사에 응답한 상황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10일까지 확인된 유증상 584명 중 1명이 양성, 539명이 음성, 3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감염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신도분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벗어 나기 위해 신천지 신도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